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우리 안에 돼지

누구를 위한 사육인가

봄방학을 맞아 집에 있는 아들이 점심에 햄을 구워달라고 한다. 햄을 잘 좋아하는 아들인데 평소에는 잘 사주지 않는다. 겨우 졸라야 먹을 수 있던 햄이 주방에 있는 걸 발견하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햄을 구워달라고 아우성이다. 햄은 설날이라 선물로 들어온 것이었다. 구운 햄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갑자기 어찌 읽는 <우리 안에 돼지>가 생각난다.

암돼지는 오직 새끼돼지를 낳기 위해 존재한다. 인공수정을 통해 새끼 낳는 일만 반복하면 암돼지는 더



축사 노동자들 윤리적 고통에 시달려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되면 결국 도살돼야 한다.

일 년 동안 2~3번의 임신을 통해 27마리의 새끼돼지를 낳게 되는 암돼지는 짚을 먹기 위해 달려드는 새끼돼지 때문에 항상 찢겨진 입을 입고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암돼지의 유두 손상을 막기 위해 새끼 돼지의 이빨을 깎거나 간다.

또한 새끼 수컷돼지는 특유의 냄새를 없앤다는 이유로 마취도 없이 거세를 당하는데 이 모두가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벌어지는 행위들이다. 돼지들은 이렇게 공장형 밀폐식으로 사육되고, 대규모 양돈 경영방식은 돼지들을 기계처럼 다룬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비단 돼지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다. 공장식 축사에서 일하는 사육자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일상화된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윤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공장식 축사에서 일하는 솔렌의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 돼지들이 무더기로 죽은 날 부엌에서 혼자 운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이니, 사육사들은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동물들을 사랑하는 어린 소녀 솔렌

의 눈에 비친 돼지들의 삶은 책장을 덮을 때까지 내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모든 가족 사육방식의 어두운 면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다른 방식인 동물들을 가두지 않고 풀어 키우는 전통적인 사육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꼭 절망적이거나 또 현실적으로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육식에 대한 비난을 할 수도 없다. 다만,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햄 하나를 사더라도 멍청하게 될 것이고, 날로 늘어가는 인공 식품을 무턱대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과 노동자, 환경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 안에 돼지 / 조슬린 포르세, 크리스틴 트리봉도 지음 / 배영란 옮김 / 숲속여우비 / 77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나를 비워 손 내밀게 하다

허경희 '인문학으로 떠나는 인도여행' ... 300컷에 달하는 생생한 사진

인도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인도는 5000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신비로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유구한 문명을 지닌 신비의 땅임에도 한국에서는 인도를 가난한 나라, 명상의 나라, 신화의 나라 등으로 단편적으로 인식돼 왔다.

인도 자와할랄 네루 대학에서 인도 역사를 전공한 저자는 인문학적 시각에서 인도를 바라봤다. 저자는 인도에서 맛달뜨린 낯선 환경과 소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책을 연다. 그 과정 속에서 저자는 인도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현장을 통해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난다. 낯선 나라를 구석구석 누비면서 나와 다른 이들의 삶과 문화를 통해 결국 자신이 뿌리 내릴 땅이 어디인지를 찾는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여행을 통해서 느끼는 답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굳이 언어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여행을 한 번이라도 떠난 이들이라면 여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매력에 무엇인지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인도여행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우정을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읽는 이에게 "여행이란 나를 비우고, 자신을 들음으로써 하는 훈련을 비우며,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라는 해답을 전한다.

하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은 한 여성여행자가 자아를 찾기 위해 떠난 진부한 여행 스토리가 아니다. 자신의 내면의 성찰을 마친 저자는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인문학적 시각으로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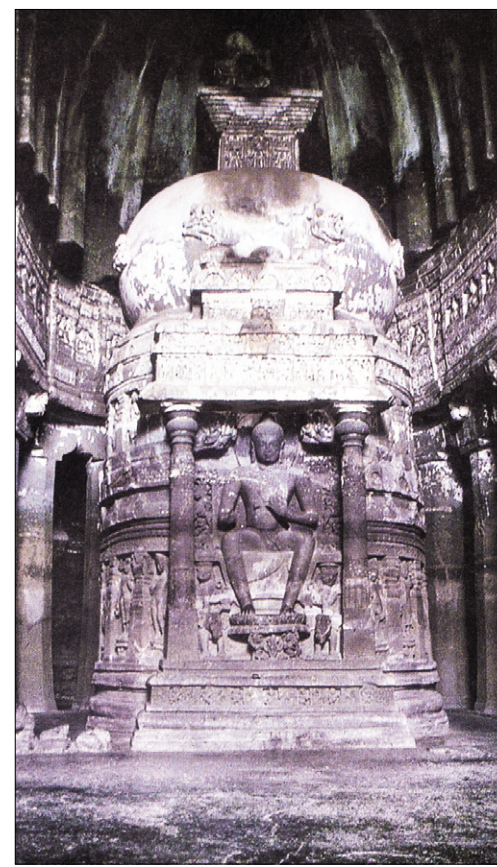
인도는 힌두교와 카스트제도를 비롯한 독특한 종교와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600년간 이슬람의 지배와 200년간의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날 인도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인도이지만, 알고 보면 끊임없는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인도 고유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음을 이 책은 알려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지금의 인도를 저자는 "문화가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고, 삶이 되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인도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고 있는 곳이라는 걸 자신의 여행담을 통해 진솔히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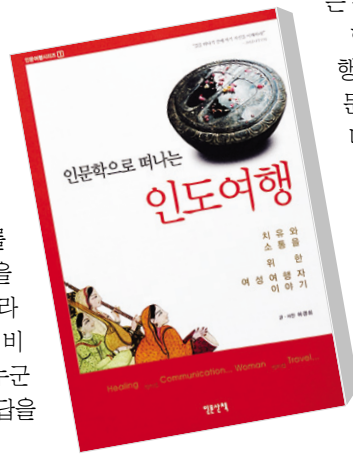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 여성여행자가 떠나는 여행의 기록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우리 내면의 성찰까지 이르게 한다.

책은 저자가 인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각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기록한 300컷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문학 철학 종교 예술의 시각에서 인문학적으로 글쓰기가 돋보인다.

인문학으로 떠나는 인도여행 | 허경희 지음 | 인문산책 펴냄 | 1만5000원



인도의 아잔타 동굴.



이은정 기자

손오공과 함께 하는 신기한 구법여행

현대적 감각으로 재편한 3권의 '서유기' 선보여

삼장법사와 세 명의 제자들이 펼치는 모험담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는 <서유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수의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우리에겐 익숙한 이야기다.

1000년 넘게 오랫동안 대중적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이 환상적인 스토리는 <삼국연의> <금병매사화> <수호전>과 함께 중국 4대 기서(奇書)로 불리며 동양적 판타지의 정수를 보여준다.

<서유기>는 명나라 당시의 암울한 정치와 도교를 우회적으로 풍자하며, 낭만과 재치가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하게 꾸며졌다. 하지만 유쾌하고 재치 가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유기>는 여태껏 원서에서 충실한 완역판으로만 출판돼, 소위 '전문가용'에 그쳐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번 새로 발간된 <서유기>는 총 3권으로 구성됐다. 100회에 달했던 '완역판' 중에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중심



<서유기> 전 3권.

으로 간주려 45회 분량으로 엮었다. 한시(漢詩)와 주석(註釋)이 많이 붙어 읽기 불편하고 어려웠던 책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젊은 독자층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책의 내용 중간 중간에 삽화를 삽입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래 <서유기>는 중국 당 태종 즉위 3년(서기 623년)에 현장 스님의 기행문인 <대당서역기>에 상상적인 내용과 기이한 에피소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유기>로 탄생하게 됐다.

이제껏 이런 <서유기>의 긴 분량과 어려운 해설에 주눅 들어 탐독하고 있지 못했던 독자라면, 새롭게 풀어 엮은 <서유기>를 통해 새로운 환상의 판타지 소설을 감상해 볼 수 있다.

서유기오승은 지음·임흥빈 편역·김종민 그림 | 문학과학지성사 펴냄 | 각 권 1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불
2	나는 걷는다 부다와 함께	창진	휴
3	불같이 여름같이 가을같이	무하	초롱
4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5	금강경 이야기	김동규	금강경속학회
6	명불 마을 아름다운 절	금강	불광출판사
7	전날 갓이 어디 있소라	대행	한미음원
8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9	행복 내 작품입니다	월호	미움의 숲
10	누구 없는가	법진	김영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말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대원 선사 서문 중에서...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세계 최대의 공인집 선문염송 30권 중 15권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체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울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상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우루빈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의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북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배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정직물로 삶아 나무통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금강정사 목식품

서울법당: 02)742-0172 대구법당: 053)425-3063
 평해법당: 054)261-2231 울산법당: 052)211-2161
 부산법당: 051)514-3566 대전법당: 042)862-5539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 기본 배움배 2500원 (52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